

# 송새벽 “영화 ‘진범’ 여름에 시원하게 볼 수 있는 영화”

‘피해자의 남편 vs 용의자의 아내’ 위험한 공조... 10일 개봉

“영화를 보시고 이웃과 잘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좋겠어요. (웃음)” 배우 송새벽(40)이 영화 ‘진범’으로 돌아왔다. 오는 10일 개봉하는 ‘진범’은 진범을 찾고 싶은 살인 피해자의 남편과 범인으로 지목된 남편의 결백을 입증해야 할 용의자 아내의 아슬아슬한 공조를 그린 스릴러 영화다. 영화는 시간을 앞두고 오가며 사건의 실타래를 풀어 간다.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되며 관객의 의심을 키운다. 스릴러이지만 대사가 많고 두 주인공이 서로에 대한 의심을 직접 드러내는 장면이 많아 한 편의 연극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만난 송새벽은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연극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돌아왔다. “무슨 이런 대본이 있지?” 했어요. 인물의 등장과 퇴장이 거의 없었고, 인물의 긴밀함과 사건의 빠른 속도 등 플롯이 인상 깊었죠. 하게 되면 힘든 것 같긴 했는데 도전해 보고 싶었어요. 이야기 자체도 옆집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었고요. 마치 남의 일기장을 훑어보는 듯한 느낌이었던가요?” 송새벽은 “처음 시나리오 읽을 땐 범인지 도통 누군지 몰랐다”며 “관객들도 같은 재미를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송새벽이 맡은 영훈은 아내가 살해당하고, 그 범인으로 자신의 친한 친구가 지목되자 큰 혼란에 빠진다. 그의 연기를 통해 스크린에서 그 고통이 전해져온다. 송새벽은 “저도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영훈의 고통이) 피부로 와닿는 느낌이었다”며 “영훈에게는 복잡한 감정이 많아서, 따라가기 힘들 때가 많았다”고 털어놨다.

“연기자로서 아내가 살해당한 상황을 상상하고 몰입해야 했는데, 아무래도 힘들었죠. 특히 살해당한 흔적을 청소하는 장면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굳어있는 피를 닦고 정리하면서 애써 잊으려고 하는 건데 ‘컷’하고 나니까 눈물이 날 정도더라고요.” 영화 속 시간이 현재와 과거를 계속 오가는 까닭에 관객이 흐름을 한 번 놓치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송새벽은 “초반부에서는 오버랩 되는 장면도 많고 속도도 빠르니까 쫓아가기 바빴다”면서도 “그 빠른 속도감이 나쁘지는 않았다. 또 대본이 사실적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연극 무대에서 활동하던 송새벽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 (2009)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이후 ‘방자전’ (2010)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인류멸망보고서’ (2011), ‘위험한 상견례’ (2011), ‘아부의 왕’ (2012), ‘도희야’ (2014), ‘도리화가’ (2015) 등 주로 영화에 출연하다 지난해 tvN ‘나의 아저씨’로 드라마에 처음 출연했다. “드라마는 ‘대본이 어제 나와서 오늘 촬영한다’는 이야기를 전에 많이 들어서 두려움이 많았어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혼자 지레 겁을 먹었죠. 올해 ‘빙의’까지 드라마 무편을 찍으니 전보다 나아진 기분은 들죠. (웃음)” ‘진범’의 흥행 여부에 대해서는 “여름에 시원하게 볼 영화”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독특한 스릴러 영화 같아요. 저 역시 찍기 전에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영화를 보고 나서는 ‘도전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합뉴스



## 원작보다 감성 키운 tvN ‘지정생존자’ 3.4% 출발

원작과 출발은 같았지만 국내에 맞게 바꾼 에피소드와 감성을 강조한 전개로 차별화를 했고, 이어서 호불호가 갈렸다. 2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30분 방송한 tvN 월화극 ‘60일, 지정생존자’ 1회 시청률은 3.4%(이하 비지상과 유료가구)로 집계됐다. 첫 회에서는 대통령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환경부 장관 박무진(지진희 분)이 완전히 해고되기 전 국회의사당에 테러가 발생, 대통령부터 주요 국무위원이 다 사망하면서 60일 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작품은 넷플릭스 인기 오리지널 시리즈인 ‘지정생존자’를 리메이크해 원작과 어떤 차별성을 보여줄지 주목받았다. 첫 회에서는 대통령과 박무진이 갈등을 빚는 계기를 ‘미국산 디젤차 환경 기준 완화’로 풀어나고, 과거 이야기를 통한 인물 간 관계를 세밀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원작과 차별화했다. 이를 두고 한국적 감성으로 표현했다는 평도 있었지만, 중간에 과거 이야기가 삽입되는 바람에 국회 폭파 장면부터 박무진이



권한대행을 맡는 모습까지 휘몰아치는 전개가 힘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월화극 부동의 1위는 MBC TV ‘검법남녀’ (5.9%-8.5%)였으며 KBS 2TV ‘퍼퓸’ (4.0%-5.0%), JTBC ‘바람이 분다’ (4.119%) 순이었다. SBS TV는 당분간 월화드라마를 편성하지 않고 조만간 예능을 선보일 계획이다. /연합뉴스

## 김수미, 탁재훈·이상민·장동민과 버킷리스트 실현

MBN 예능 ‘최고의 한방’ 16일 첫방송

MBN은 오는 16일 밤 10시 50분 새 예능 프로그램 ‘최고의 한방’을 선보인다고 2일 예고했다. 이 프로그램은 배우 김수미(사진)가 가수 탁재훈, 이상민, 개그맨 장동민을 ‘세 아들’로 삼고 버킷리스트를 실천해가는 내용이다. 세 아들은 ‘엄마’ 김수미의 살벌한 인생수업을 통해 좌충우돌 깨우침을 얻으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성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볼밤(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단, 하나의 사랑(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2 스페셜 45 내 친구 요리리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볼밤(재)	00 SBS 12 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교육시리즈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의별 중계 50 다큐 공감(재)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2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코리언 지오그래픽 플러스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5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00 자동차부착식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좌충우돌 만국 유람기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 45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 스페셜	00 SBS 스페셜(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파파독 2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0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7	00 KBS 뉴스 7 40 미니디큐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토크라크
8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볼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오늘밤 김제동	00 단, 하나의 사랑	05 살맛나는 세상	00 절대 그이
11	35 UHD 숨터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썸바이벌 1+1	05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재)	2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TV는 사랑을 싣고(재)	35 스포츠 다이어리 50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명탐정 피트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페파 피그(재)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5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10 EBS 초대석	19:00 제로니모 스티븐의 모험
07:00 로보가 폴리	13:00 지식채널e	19:30 생방송 판다다
07:15 꼬마버스 타요	13:10 최고의 요리비결	20:00 갤럭시 프로젝트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4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20:40 세계테마기행
07:45 페파 피그	14:30 꼬마버스 타요(재)	〈내 인생의 오아시스 중양아시아 3부 신이 보낸 선물〉
08:00 당동당 유치원1~2	15:00 출동! 파자마 삼총사	21:30 한국기행
08:30 몬카트	15:30 뽀롱뽀롱 뽀로로(재)	〈시골달인 3부 나와라 만능 손〉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시즌4	15:45 출동! 슈퍼원스(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9:00 마사와 곰	16:00 최고다! 호기심딱지 시즌4(재)	22:45 극한직업
09:30 원더볼즈	16:15 세미와 매직큐브	23:55 EBS 초대석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스페셜	16:30 당동당 유치원1~2(재)	24:50 글로벌 특선다큐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b>子</b> 36년생 주체성을 가지고 임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48년생 기존의 판세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쓰라림이 보인다. 60년생 경험에서 얻어지는 인식이 유용하리라. 72년생 경사스런 일이 생긴다. 84년생 일치하지 않아서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다. <b>행운의 숫자</b> : 17, 96</p>	<p><b>午</b> 42년생 모르고 지냈으면 더 나았을 법한 비밀을 우연히 듣게 된다. 54년생 과신하지 않는다면 차질은 없다. 66년생 속삭이를 가릴 줄 알아야겠다. 78년생 처음에는 부담스럽겠지만 면역력이 생겨서 편찮을 것이다. 90년생 임시방편적이라면 무미하다. <b>행운의 숫자</b> : 85, 59</p>
<p><b>丑</b> 37년생 불완전한 관계가 될 수 있다. 49년생 간단명료한 것이 효과적이다. 61년생 액운이 보이니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73년생 천천히 하는 편이 완벽함을 도모하기 쉽다. 85년생 확연한 것과 미묘한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b>행운의 숫자</b> : 24, 66</p>	<p><b>未</b> 43년생 빨리 체념할 줄 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55년생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이다. 67년생 주된 것보다 부가적 가치가 오히려 될 것이다. 79년생 오히려 인한 시비가 나타날 수다. 91년생 방심하다가 휘둘릴 수도 있으니 적당한 간격을 두라. <b>행운의 숫자</b> : 02, 55</p>
<p><b>寅</b> 38년생 방치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된다. 50년생 보류 되었던 바가 재개되어 탄력을 받게 된다. 62년생 작은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74년생 절제했을 때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86년생 밀려오는 현상들은 지경을 좌우하지 못 하리라. <b>행운의 숫자</b> : 64, 42</p>	<p><b>申</b> 44년생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니 확실히 대비하라. 56년생 예기치 못한 판세로 난감한 입장에 놓이리라. 68년생 길조가 순풍을 타고 날아오르듯이 기운차다. 80년생 단속적이어서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 92년생 추진해 봤자 별로이니 내버려 두라. <b>행운의 숫자</b> : 08, 17</p>
<p><b>卯</b> 39년생 의욕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겠다. 51년생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63년생 재물이 나타나고 있으니 수용할 준비를 하라. 75년생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7년생 내버려 두면 자연히 정리 될 것이니 알고도 가만히 있음이 낫다. <b>행운의 숫자</b> : 33, 49</p>	<p><b>酉</b> 45년생 안정세를 취해야겠다. 57년생 최종 마무리를 해야 할 단계이다. 69년생 기본에 충실하고 있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81년생 방심하다가 급락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 93년생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자. <b>행운의 숫자</b> : 35, 97</p>
<p><b>辰</b> 40년생 주변의 꼬에 빠진다면 복잡해지면서 손해를 본다. 52년생 본인이 기대한 것 못지않을 만큼 원만한게 진행 되리라. 64년생 잘 살펴 볼 일이다. 76년생 막연하다면 절제할 수도 있어야겠다. 88년생 어떠한 환경 하에서도 흔들림 없는 쫓대를 가져라. <b>행운의 숫자</b> : 62, 01</p>	<p><b>戌</b> 34년생 검토한 결과가 확실해야 한다. 46년생 고전하는 구도가 역력하다. 58년생 이면에 숨어 있는 변수들까지 감안해야 안전할 것이다. 70년생 다양한 경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82년생 핵심 가치를 집약할 줄 아는 요령이 필요하다. <b>행운의 숫자</b> : 44, 14</p>
<p><b>巳</b> 41년생 부자연스러움 수밖에 없다. 53년생 마음 놓고 지내도 된다. 65년생 여태까지 해 왔던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77년생 망설이지 말고 속히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89년생 바람이 몹시 세게 불어 연줄이 끊어질 수도 있는 상태이다. <b>행운의 숫자</b> : 15, 44</p>	<p><b>亥</b> 35년생 평소와 생각지도 않은 기회가 찾아 올 것이니 잘 살펴라. 47년생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지 마라. 59년생 사소한 것에서부터 비롯되리라. 71년생 술에 넣은 팔이라도 익혀야 먹는 법이니라. 83년생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강력하게 조치하라. <b>행운의 숫자</b> : 19, 21</p>